

# 發 刊 辭

21세기를 향한 오늘의 세계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WTO 체제의 출범과 EU, NAFTA 등 지역주의가 팽배되어 가면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컴퓨터를 주축으로 한 통신, 반도체 등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산업사회가 情報社會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는 지금보다도 한층 더 복잡다양화해 질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사회가 크게 진전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개인용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향후 21세기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정보산업뿐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전략차원에서 情報產業과 기술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賦存資源이 빈약한 대신 우수한 노동인력이 풍부해 고도의 기술 및 두뇌 집약적인 정보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그동안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年평균 40% 이상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전자와 더불어 수출 선도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밖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노사분규의 심화와 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수출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기초 기반 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정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드웨어를 능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인 산업으로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소프트웨어분야는 아직까지 유치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情報通信網 등 하부 구조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新經濟計劃의 일환으로 국가 정보화 및 정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정보화의 확산과 정보산업의 수요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超高速情報通信網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제휴를 통한 대형컴퓨터의 개발, 고속 主電算機의 자체 개발, 멀티미디어 및 CATV 등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공동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등 동종업계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정보산업의 선진국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韓國電子工業振興會와 공동으로 한해동안 있었던 국내의 정보산업의 동향을 점검하여 정책방향의 제시를 위해 情報産業年鑑을 발간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동년감이 발간되어 오면서 政府의 정책 및 企業의 경영계획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감히 확신하면서 나름대로의 사명과 공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유용한 년감이 될 수 있도록 집필에 애써 주신 정부, 학계 및 업계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동년감이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994년 10월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社 長 金 振 億